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3
Mar. 2020
Vol.8 No.03

- 주안에 네이버 모임
- 주안에 TUNE 개강
- 주안에 라이프 개강
- 청년부 / 교육부 소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두 눈을 감고 리더 뒤를 따라가는 팔로워들...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사진: 이광영 기자>

‘입은 꾸욱~, 귀는 활짝!’

■ 팀사역 세미나/ 리더의 자세는...

MP 채플은 2/19, 2/26 벨리 채플은 2/21, 2/28 주중 예배 때 HIS UNIVERSITY 의 오부운 교수님의 팀사역 세미나가 있었다.

HIS UNIVERSITY 의 심리치료와 상담에 가장 인기 있는 교수이신 오부운 교수님은 이론으로 리더십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각자의 리더로서의 문제와 답을 유출해 내시며 함께 생각하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독특한 세미나였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을 통한 치유의 길로 인도 하셨을 교수님의 경험을 통한 명강의는 주안에교회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큰 영향을 미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의 훌륭한 리더로



깨우쳐 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잘 이루어진 주안에교회 리더십을 보시며 여기까지 오도록 자기를 돌아보며 이끌어 온 리더들을 격려 하시며 보다 나은 리더로서의 덕목을 가르쳐 주셔서 주안에 교회 모든 리더들이 성령님의 도구 되어 함께 사역하는 현장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할 내일이 기대 되는 세미나였다. 나와 다른 동역자를 인정하므로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하라. 그렇게 함께 있다보면 서로의 내면의 민낯이 저절로 보여지는 동역자가 된다.

리더는 말하기보다 듣는 연습 부터 해서, 내가 가진 장점으로 상대의 약점을 가려 주어야. 자신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옆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리더의 일자리를 내어주고, 리더는 내면을 먼저 성찰하고, 말을 먼저하지 말고 기다리는 리더가 되자.

팀사역의 원리를 통해 주안에교회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팀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계기가 될 귀한 세미나였다.

| 이예스더 기자 |

코로나 예방 생활 수칙

20초이상
손씻기



Wash your hands often with soap and water for at least 20 seconds.

세정제로
소독하기



If soap and water are not available, use an alcohol-based hand sanitizer.

더러운 손
얼굴
노타치



Avoid touching your eyes, nose, and mouth with unwashed hands.

환자와
접촉금지



Avoid close contact with people who are sick.

아플 땐
외출금지



Stay home when you are sick.

기침 때
타슈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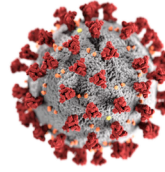
Cover your cough or sneeze with a tissue, then throw the tissue in the trash.

셀폰 등
자주 닿기



Clean and disinfect frequently touched objects and surfaces.

‘하나님의 천둥소리 회개의 계기로’



왕관모습과 비슷해 이름 붙여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도 이제 예외 국가는 아니다. 사망자가 늘고 있고 확진자도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미국민들도 사재기에 나서며 서서히 공포감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가운데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다” 라고 자신의 팟 캐스트를 통해 선포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초) 자연적인 모든 힘에 대한 모든 권위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라며 성경 구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메세지 요약.

이러 정죄함으로 인한 씩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도 모든 인간처럼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지만 특정한 죄 때문만은 아니다. 기독교인도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 ‘죄로 인해 이 세상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됐다’ (로마서 8장 20~23절)

아담과 이브를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포함, 창조 질서는 죽음으로 인한 씩음과 공허함을 겪게 되고 모든 살아 있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명하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에게 고통은 처벌이 아닌 정화 수단

◇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도행전 12장)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헤롯왕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헤롯왕을 쳐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질병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하나님의 천둥소리, 회개의 계기로 삼자’ (누가복음 13장 1-5절)

전염병 창궐과 자연재해는 심판 중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천둥소리다.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다.

나도 악기 배워 ‘멋지게 하나님 찬양’

■ 주안에 TUNE 개강

“색소폰으로 멋지게 한곡 날려야지” “목장에 배 때 반주하고 싶어” “우리 아이도 찬양팀에 봉사했으면...” 저마다 예비 연주자의 꿈을 안고 모였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악기 하나 다루는 게 만만치는 않기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의 긴장감도 비쳤다.

주안에Tune이 지난 22일 팰리체플에서 70여 명이 등록해 오리엔테이션과 첫 수업이 있었다. 중고등부가 다수 였지만 60, 70대 늦깎이 학생도 적지 않았다. 12주 과정만 마치면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전문강사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이번에 기필코 성공하리라” 다짐하는 모습이 이었다.



키보드 기타 드럼 바이올린은 물론 약간 생소한 유클렐레(Ukulele) 까지 10여개 기악반에 보컬반까지 적지 않게 수강생이 몰렸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샤워 차량’ 등 지원 받아 구체적 봉사활동 준비

■ ‘주안에 네이버’ 홈리스·금홀 사역

주안에 네이버 사역국은, 지난해 12월의 첫모임에 이어서, 두번째 모임이 주일인 2월 22일 오후 3시 30분 앰피치플 카페에서 있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담당 사역자인 이 케이 시 목사와 이성우 전도사 그리고 담당 장로 이신 김경배 피택장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팀(샤워팀, 물품관리팀, 메디칼팀, 미용팀, food 팀, security 팀) 으로 구성해서 팀 리더를 세우고, 각자 원하는 팀을 정하여서 구체적인 팀 미팅과 아울러서 Training 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히 “주안에 네이버” 사역은 벌써, 필요한 많은 장비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의 협조로 준비기간과 비용이 단축되는 은혜와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혁 목사는, 모든 봉



사가 교회 내에서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교회 밖의 community 를 섬긴다는건 더욱 어렵고도 힘든 일임을 강조 하면서 모

두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자고 권면했다.

| 오희경 기자 |

만남의 기쁨, 배움의 즐거움 ‘즐거운 개학’



■ 주안에 라이프 불학기 개강

2020년 불학기를 맞이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안에 라이프가 개강되었다.

약 20과목의 알찬 강의 내용으로 20여명의 강사님들과 18명의 장금이들이 수고하게 되었다. 특히 신입 국장으로는 공태용 집사가 주안에 라이프를 섬기게 되었다.

때이른 초봄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개강 첫날 각 과목의 필요한 약기를 들고, 메고 오시는 어르신들과 운동에 필요한 매트

를 어깨에 걸치고 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일찍부터 오셔서 등록접수 하시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 주셨다.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도우미로 나선 주안에 라이프 스태프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했다.

공태용 집사(주안에라이프 국장): 2020년 주안에라이프 불학기와 가을학기를 섬길 새국장으로 부름받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등록된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강

사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현숙 권사(주안에라이프 장금이): 이번 주안에라이프 불학기에도 장금이로 선택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온 사역이었지만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하며 내 부모님을 대접하듯 어르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질 좋고 영양가 있는 재료를 구입하여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로 섬기겠습니다. | 임용자 기자 |

■ 코람데오 리더 모임

1박2일 섬김과 나눔, 청년부 부흥 마음 모아

2월 7일 금요일 저녁, 코람데오 청년부는 2020년 목장이 새로 개편 되면서 West Hill에 위치한 숙소에서 새로운 리더들과 서포터즈분들, 그리고 담당사역자이신 오승현 목사님과 함께 단합모임을 가졌다.

이날 서포터즈분들이 준비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고, 또 모든 순서가 마친 뒤에도 리더들은 밤을 세워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1박2일의 시간동안 이번 한해 코람데오 청년부에 부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허락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양하민 기자 |



■ 2020년 리더로 섬기게 되면서...

'주의 이끄심 따라 낮은 자리로'

2020년 2월 7일, 맛있는 냄새가 밖에서도 솔솔 풍기는 저녁 시간 West Hill 지역...

어디선가 풍겨오는 BBQ 냄새에 이 집이다, 저 집이다 짐작하며 어느 집의 문을 열었다.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코람데오 리더 및 서포터즈분들과 조촐하면서도 푸근한 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피곤함을 뒤로하고 이곳에 모였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잠시나마 우리는 진짜 식구(食口)가 되었다. 서로가 섬김을 받았으며, 각자의 의견과 단합을 위해 입을 모았고, 주가 이끄실 2020년을 기대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올해도 나는 Leader의 자질을 떠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배움의 기회를 잡아본다. 내가 아닌 주님이 이끄실 코람데오에 기대를 걸고 이번에도 더욱 낮은 자리로의 다짐을 해본다.

각기 많은 기도 제목으로 모였지만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안예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원치 않는 병으로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보살피 주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의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사 생명의 샘이 솟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쓰임 받게하시고 밀알이 되게 하시어 주의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의 사랑으로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죄인으로써 항상 바라기만 하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모두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세진 청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길 기대'

처음 청년부 리더의 자리를 놓고 기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신 것마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 도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내 주위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가까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달동안 청년부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 몇 번 안되지만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청년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부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목장, 청년부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뜻이라 생각을 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더 성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김지혜 청년



■ 새가족 소개

'말씀으로 내 영이 깨어나'

할렐루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이렇게 주안예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릴수 없는 상황이 있던중, 아이들 만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수 있는 교회를 기도로 구하던 중에, 귀하신 분으로부터 주안예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형, 이현주 집사(MP)

먼저는 최혁 목사님의 말씀부터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서 직접 듣고싶은 설레임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가운데 나의 영을 깨우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해 주셔서,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간의 어려웠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서툰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주신 교우분들과, 아이들이 속한 교육부를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덕분에, 저희가족은 오래 출석한 교인처럼 편안하게 적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주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자들 얼굴에 행복이'

집 근처에 있던 작은 개척교회를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섬겨오다 영적 갈급함에 몇몇 교우와 함께 그 교회를 나신 뒤 딱히 마음을 붙잡는 곳이 없게 지내오다 그 교회의 창립멤버들이 대다수 동지를 둔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동준, 윤선옥 집사(벨리)

신기한 것은 저의 경우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단 한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백지 상태로 이곳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금요일예배를 먼저 참석하며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 교회의 새내기로서 가장 훌륭하다 여겨지는 건 친교 방식이예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나눌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온 성도들이 낯설어하며 주변을 어색하게 맴돌다 혼자 서러워하며 다시 길을 떠나지 않도록 철통같이 목장 식구들의 친교 식사 자리까지 묶어주는 시스템.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새신자들을 잘 보살펴서 무사히(?) 목장의 일원이 되기까지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은 정말 이 교회만의 자랑인 거 같아요.

이제 겨우 두세달인데 어찌다보니 성가대에 부역봉사에 주안에 라이프 섬김까지 참 열심히 달렸네요. 어느 봉사의 자리에서나 제가 느꼈던 것은 행복해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이쁨도 없이 빛도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 2008년 이후 사실 한 인교회들의 분위기가 그 전과는 다르게 살짝 침체되어 있음을 느껴왔는데 이 교회는 그전의 소위 '으쌔으쌔' spirit이 살아있어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소서'

■ 벨리 3개 권사회 한자리

지난 2월 2일, 주안예교회 벨리채플 전체 권사회에서는 새회장단의 출범식이 있었다.

최혁 목사님과 85명의 권사들 그리고 임원진들이 함께 하여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을 함께 가졌다. 2부 순서로는 전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사회 정관을 검토하였으며 2020년도의 여러 가지 행사를 교회 사역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월별과 절기행사를 구분하여 준비를 시작하였다.

담임목사의 권면의 말씀으로는 내가족을 돌보듯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권사 모두는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 으로 화답하였다. | 임용자 기자 |



■ IC Kidz(밸리채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 모아 양육



최다니엘 전도사(IC Kidz 담당):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고전 13:11)” 더이상 어린 아이처럼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꿈과 뜻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서동관 집사(IC Kidz 국장): 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차세대에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워나가는 일이기에 IC Kidz 선생님들과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다니엘 전도사님이 3월부터 밸리 IC Kidz를 담당 하시기 된다. 그리고 국장을 맡으신 서동관 안수 집사님 및 부장 전기숙 권사님, 총무 채은영 권사님, 학부모 사역팀장에 최주디 집사님, 그리고 귀한 선생님들이 섬겨주시게 된다. 2020년 한해도 밸리 IC Kidz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넘치는 한 해가 되리라 믿는다. | 류명수 기자 |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예쁜 동심 잔치

■ 발렌타인 주일(MP IC Kidz)

2월 11일 MP채플 IC Kidz&Joy 발렌타인 주일날, 세상은 꽃이나 초코렛, 맛있는 음식 등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하지만 주안 예교회 Kidz와 Joy 아이들은 요한복음 3

장 16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를 먼저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들이 정성껏 만든 '사랑의 보드판'에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쓰기도 하고, 다 쓴 아이

들은 교대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약속카드(한주동안 부모님께 사랑받는 예쁜짓 한 가지씩 하고 인증샷 보내기)'를 적어 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각 반별로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영상으로 담아 보내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부모님들께서 한아이, 한아이 준비해 주신 구디백으로 Kidz와 Joy 아이들 모두의 손과 눈과 입이 즐거운 하루였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 부부교실

배우자의 소중함...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가길 소원하는 주안예교회 부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 부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성장하는 관계를 목표로 시작된 부부교실이 2월 15일 오리엔테이션겸 1강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많이 웃고 소통하는 기회였습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 부부들의 모습에서 더 견고해질 관계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자 하는 결단을 보게된 시간이었습니다.

| 이니콜 전도사 |



■ ICY 발렌타인 뱅킷

어머니들의 정성 듬뿍 행복한 '주안에 발렌타인'

2월 11일 발렌타인 주일을 맞이하여 MP 채플 ICY에서는 뱅킷행사가 진행되었다.

예매가 끝난 뒤 특별로 나눠진 테이블에 앉아 PSG 어머니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라자니아, 토스트, 샐러드, 오렌지, 칩스와 음료수를 맛있게 먹은 뒤 두 MC(Joshua & 한비)의 진행으로 게임도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렌타인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 주안에 한글학교

부모님들은 목장나눔, 2세들은 따로 모여 뿌리공부

주안에 한글학교가 2월 첫째 주일부터 봄 학기를 개강 하였다. 주일날 부모님들이 목장에서 은혜를 나누는 같은 시간인 12시부터 문화, 역사 등을 한글 교육과 함께 가르치고 있다.

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서 매주 수고하여 주신다. 특별히 이번 봄학기부터 이소의 선생님과 현직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경원 선생님이 한글학교 선생님이로 새로 합류하여, 더 발전될 한글학교를 기대하고 있다.

| 임용자 기자 |



깨어있는 예배 인도자



윤세희 집사
(ICY 부팀장)

지난 2/16-2/17 1박 2일동안 ICY Praise Team Leader들을 위한 Workshop이 ANC Retreat Center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벨리, MP유스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케이시 목사님과 이성우

전도사님의 인도아래 Awakening이란 주제로 하나님앞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예배 인도자로서 지녀야할 리더십, 태도, 찬양팀이란 팀사역에서의 역할등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막 찬양팀에서 헌신하기로 한 아이들부터 수년간 찬양팀에서 섬겨왔던 아이들이 교회가 아닌 아름다운 산장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비록 각각 섬기고 있는 채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두채플 아이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각 채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

뜨거운 찬양의 밤을 지나고 둘째날은 케이시 목사님과 이성우 전도사님께서 리더십과 찬양 인도자의 태도와 역할 등에 대한 강의를 있었다. 이날의 Workshop을 위해 아이들 각자에게 숙제가 있었는데 각각의 채플에서 두팀씩 찬양팀을 구성하여 Awakening이란 주제에 맞는 찬양곡을 세곡씩 준비해 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서로 팀을 구성하고 곡을 준비하고 서로의 바쁜시간들을 맞추어 연습하는 것은 아이들에서 큰 스트레스였다. 긴장된 마음으로 각팀이 준비한 찬양곡들을 다른 팀앞에서 인도하고 또 다른 팀들이 준비한 찬양을 보면서 아이들은 많은것을 느끼고 더욱 성숙된 찬양팀이 되기위해 한걸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각자의 준비한 찬양을 마친후에는 준비한 곡에 대한 설명과 각자의 팀내에서의 역할등을 설명하는 Presentation도 가졌다.

준비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아이들이 보여준 찬양미션은 아주 훌륭하였다. Workshop을 준비한 사역자도 옆에서 함께 봉사한 PSG, 그리고 이 미션을 준비한 아이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번 Workshop을 통해 받은 찬양팀 아이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우리 주안예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더가 되길 소망한다.



Worship to Glorify God's Name

Seobin Yun At first, when I heard about the awakening workshop, I felt pressured. I was worried. We are "performing," but on top of that, I'm a leader? It seemed like the pastors were asking too much. But amidst all those feelings, I couldn't deny it because I knew it was from God. If you think about it, what are the odds that the awakening workshop is on the week that I lead praise for Sunday? Very rare. So I took this assignment very seriously. I had no idea where to even begin, so I started with prayers. From there I read the bible and did QT and God eventually gave me a story of Lazarus that helped me to answer all the questions listed as a requirement. I put my very best effort, tears and desperation into preparing for the workshop every night. Then on one of those nights, God made me realize that I was putting more heart into the awakening workshop than my actual Sunday worship. And I fell down before God. I was heartbroken and I was ashamed. I felt so sorry for God. I was embarrassed by my shortcomings.

After the realization, I started to put more effort and prayer into preparing for the Sunday worship. And I was so spirit-filled during the worship. For the first time, I felt like I was ready to worship God. My heart was at peace, and I was bold in declaring God's love. Then I realized that God was leading me to step by step on how to prepare for the Sunday/Friday worship through awakening workshop preparation.

At the campsite, God taught me something different while preparing to "perform" (worship). Just like how other groups were running tight with time to practice, our group was on the same boat. We utilized the spare time to practice; however, it was evident that my team felt anxious about the upcoming worship. Seeing my group feeling pressured and nervous, I realized that I had to hold my ground boldly so that the rest of the group wouldn't shake. Before worship, praise team, and I told God that we had put our best into preparing for this worship from our positions, and we invited the Holy Spirit. After that prayer, I was at peace and so was my teammates.

One thing I won't be able to forget about awakening workshop is this bible verse in John 11:4 - "...for the glory of God so that the Son of God will receive glory from this". This bible verse became my purpose for being a leader. I want to do work that glorifies God's name. Even though this assignment/workshop was very challenging and gave me a massive burden on my shoulders, I learned how to prepare for the worship properly. I have faith in God that He will bring revival to this church and my duty i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in my job to hold my ground with faith. Then God will bring revival to this church one day, just like how Jesus saved Lazarus after two days, and that is "awakening."





Encountering God at Awakening

Alicia Chong Coming into this retreat, I didn't know what to expect and I was really nervous about everything. Performing in front of everyone and being around people that I wasn't close to made me anxious. I have not gone to a retreat in a long time and I was also scared that God wouldn't speak to me. However, through this retreat, I got to bond with the members from Valley chapel and see how people lead worship. I think that this experience encouraged me a lot in my capability of being in the praise team and taught me the importanc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a leader for the congregation.

On the first day of workshop, we all gathered and ate and we went into worship and the sort of introduction to what was to come. Worship was such a huge blessing to me that night. Recently, I haven't been doing well with God and I've been struggling a lot in almost all aspects of my life. I don't even remember the last time that I genuinely worshipped with my whole heart and felt God's presence in me. But in that room, I felt His strong presence. A recurring word in my head as I was praying, and singing was PEACE. In the midst of all the chaos and problems that the world gives, God is the only one who could give me peace. I realized that I have been way too caught up with the world and people that I was losing sight of what should be the only thing that I fix my eyes upon. Even in coming to this retreat, one of the main things that I was

worried about had to do with people and not God.

While worshipping, I felt this extremely heavy pressure on my chest. Physically, it was hard to breathe, but as service continued, I felt it slowly lifting. When we were praying after the message, the pressure went away completely. Through this physical pain during worship, God showed me that He hit me with these trials to teach me and show me His love in an even greater volume.

This prayer time was probably the most spiritually impactful thing that I took from this retreat. I also remember Pastor Casey coming down and praying for me. I really felt God's love at that moment. I also realized how blessed I am to have this kind of a team that yearns for Him so much.

I feel like words aren't enough to describe the experiences and lessons that I learned from this retreat. I got to encounter Go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realize His love and sacrifice, learn about what it's like to be a leader, how I can better myself as not only a leader but also a child of God, talk to people that I didn't think I could ever be close with, and so much more. I'm so blessed to be a part of this team and to have had this experience that God has given me. I'm really excited to see God work even more in us to grow more and more and to serve the ministry for His glory. God is so good :)



Movie Review

The Pursuit of Happiness

Have you ever lost everything in life with only a slightest string of hope fading fast each day? Where will you place your faith in?

This wonderful family film is about a father who lost his fortune, job, and wife; but he still hangs on to his faith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day. His desire and determination to provide a financially secure future for his son is touching. What's more incredible is that his son has an unrelenting faith in his dad to take care of him.

As a Christian, I sometimes wonder if we trust God to provide for ALL of our needs in the midst of great despair. Also, if God doesn't give what we want in troubled times, are we going to forsake our heavenly Father? Watch it and make it a great discussion in your family or among friends.

| Simon Cho 기자 |



■ 목장 소개/ 벨리 10목장(중창단 목장)

찬양 · 말씀 · 교제 통해 삶의 활력이 넘쳐요

나를 웃게 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 하나이다! (시편 18:1)



유영애 권사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든든한 후원자가 계셔서 언제나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며,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한번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큰 풍파도 여러번 있었지요. 사방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전혀 보이지 않던 앞을 환하게 비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가슴이 벅차 오르는 그 느낌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편안할 때보다 심히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매순간마다 주님을 애타게 찾게 되니, 편안할 때보다 더 주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약 2년전, 5년동안 열심히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느 교회로 가야 할까?... 기도하며 방황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갈급해 하는 저와 남편에게, 최혁 목사님의 말씀 CD 를 듣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많이 기뻐하게 하시고, 주안예교회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주안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뜨겁게 은혜받으며 믿음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나 된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홀로 버려 두신적이 한순간도 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찬송하라 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님을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 288명의 찬양대를 조직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한 인간의 전인적인 반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늘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구속 받은 은총의 감격과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소망의 2020년에도 저의 중창단(CREDO = 나는 믿습니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러모로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했던 저희들을 10목장 이란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 이제 한달이 지난 야기 목장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항상 각자의 목장에서 모임을 하고 오후 1시에 쫓기듯이 모여 찬양을 연습하던 중창단원들이기에,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었고, 모임 때마다 기쁨과 훈훈한 사랑이 넘치는 10목장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 암송할 말씀과 구절을 SNS로 주고 받으며 일터에서나 집에서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랜 중창팀으로써 만남이 이제 새로운 목장식구로서의 교제로 발전함으로 새로운 각도로 서로를 알아가며, 내 허물을 내어 보여도 그 허물을 덮어주며 같이 위로하고 격려 해주는 형제, 자매가 되어 그렇게 나눈 많은 기도 제목들이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열람되는 10목장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진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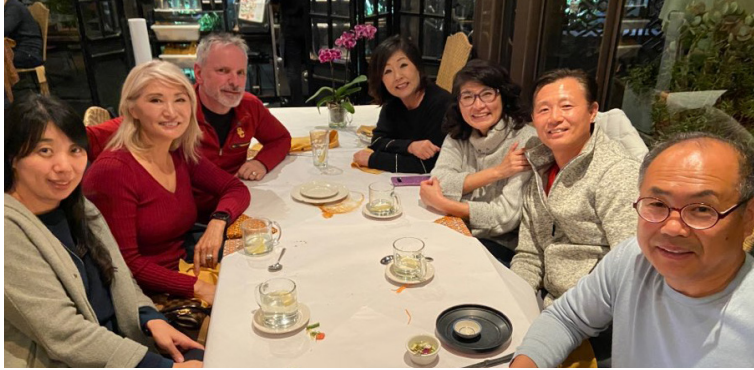
이제 중창단으로 모임보다 10목장으로 모임이 새로운 활력소를 얻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합한 참된 가족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서로를 배려하며 말씀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안에서 함께 느끼는 공감으로 채워가는 10목장이 되려합니다.

속죄제의 제사가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앞에서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속죄제의 제사가 드러짐으로 거룩을 만나는 정결이 회복되는 10목장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 유윌리엄 안수집사 |

■ 목장 소개/ MP 1목장

■ 나눔의 글



멀티플 공동체 '다름 속의 하나됨'

조용하지만 교회 내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멀티플한 목장이 있다. MP 제 1목장으로 오찬국 피택 장로와 오희경 권사가 목자로 있다. 요즘 새로운 목원들도 보이고, 새해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이 궁금증에 오목자는 "2020년 부터 EM 중년층을 목원으로 함께 섬기며 다양한 나눔과 교류를 통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분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뜻을 밝혔다.

목원의 대부분이 언어에 능통한 분들이라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이 이 미국에서 목장만이 아닌 한국교회, 한국사람, 한국문화만 존중하는 것이 아닌 2세, 3세와 또 다양한 인종이 어울어지고 다른 문화도 공존하는 다문화교회(multicultural church)로 변화되며 성장하길 기도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피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피곤하도록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3년전 구역장 미팅에서 한 구역장이 하는 말이였다. 이민 사회, 남의 나라에서 사는 일이 쉬울리가 없다. 먹고 사는 일만해도 파김치가 되도록 피곤하다. 그래도 한국 대 기업의 파견 근무하다 직장 잡아 사는 그분은 맨땅에서 일어서는 우리 보다는 쉬운 편일텐데... 공부가 끝나고 장로님께서 나에게 덧붙여주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으시길래 나는 입을 열었다.



이예스더 권사

우리 구역의 집사님은 1년 365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 저녁 6:30에 구역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지요. 8시부터 8시 까지 영업을 하니까 평일에는 구역예배 드릴 시간이 안되고 주일 만큼은 6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나마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서로가 기쁨으로 만나지요.

집사님은 교회 봉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자기 가게 일로 부담을 가지시다가 주일이면 1부 예배 기도국을 섬기고, 작년 야외예배, 운동회 날에는 일찍 공원에 도착해서 모든 텐트와 설비를 준비해 놓고 점심식사도 못하고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가게로 돌아갔지요. 혼자 가게 문을 열고 지키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파사디나 공원에서 산타아나 가게로 가야 했으니까요.

3주년 기념 예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엌에 들어가 혼자 소고기 볶음을 다 해 냈습니다. 구역장과 본인만 아는 봉사였지요. 아무도 그분의 얼굴을 모르니까요. 그 피곤한 몸으로 그는 또 가게 가서 부인의 눈치 보며, 옷겨가며 일을 하겠지요. 부인은 부인대로 혼자 되신 천정 아버님을 모시는 남동생과 올케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반찬들을 만들고, 두 분 시숙의 반찬을 준비해서 부지런히 나르지요.

부인이 언젠가 하는 말을 기억 합니다. “권사님, 제가 바지에 왜 고무줄을 넣어서 입을 줄 아시지요? 화장실 갈 일이 쉬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만의 표현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쪼개서 뛰어오게 성도의 마음이겠지요. 피곤하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닐까요?



■ MP1권사회 '꽃구경' 나들이

싸늘하게 추운 날씨가 잠시 주춤했던 2월 18일 MP체플 1권사회 회원 권사님들은 회원들간의 소통과 친교를 위한 봄 꽃 나들이를 나섰다.

라카나다에 위치한 데스칸소 가든은 북미 최대의 컬렉션 보유인 Camellia(동백꽃) forest, 3000그루에 달하는 Rose garden, 언덕을 뒤덮은 Oak forest, 지중해성 기후에 맞는 California natives 등등... 산책하면서 화려한

색상과 우아한 꽃의 자태에 빠져들 수 있는 넓고 독특한 정원이었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권사님들의 모습 만큼이나, 예쁜 꽃들의 향연을 즐기면서, 발길 닿는 곳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발력을 바라볼 땐, 권사님들의 정신연령은 아직도 소녀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하며 미소를 머금기도 했다

1시간 30분 가량의 산책을 마친 뒤 맛있는 점심을 함께 하면서, 아직도 가지지 않은 여운으로 꽃이야기를 멈추지 못 하였던 우리 권사님들...

| 오희경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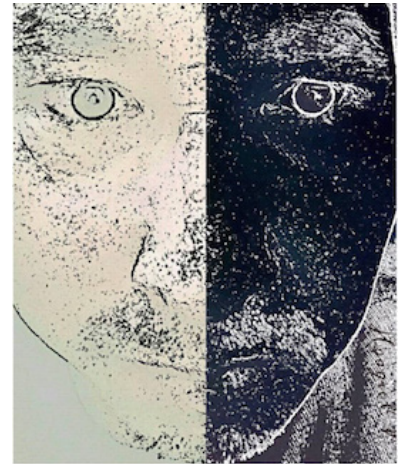
■ 제12기 주안에말씀



제12기 '주안에말씀(성경통독)' 이 시작됐다. 벨리채플 18명, MP채플 10명의 성도님들이 매주 화, 금요일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있다. 앞으로 18주동안 매주 모여서 한목소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쓴 기자들이 전달하고픈 마음을 올바르게 파악하기를 바라는 자세로 임하기에 따로이 리더가 필요없을만큼 열정으로 가득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사진: 양영·이광영 기자>

■ 포토에세이

'두 얼굴의 나'



나는 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격자다. 흑과 백처럼 정반대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사람들을 사랑도 했다가 미워도 한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사람 얼굴만 보고도 판단을 한다.

나는 누구이길래 이럴까? 나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이 모습을 모른다. 옆에 있으면 지겹고 안보이면 보고싶은 사람이다. 뭘하려고 하면 내 머리속에선 야당과 여당으로 파가 갈려 싸우기 시작한다. 해야될지 말아야될지를 싸움거리로 삼아 열심히 다투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국은 그분 편이 된다. 나를 만드신 그분의 은혜! | 최호기 기자 |

■ 전교인 수련회 '2020 주안에 패밀리'

전교인 수련회 '2020 주안에 패밀리' 가 오는 8월 7일 부터 8월 9일까지 Forest Home 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VBS 와 ICY 수련회 등 교육부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주안에 패밀리' 에서 함께 합니다. (회비: 0~2세 Free, 키즈 \$60, ICY \$100, EM/코람데오 \$120, 장년부 \$160, 드림목장/70세 이상 \$120)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45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20년 4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더, 임용자,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